

2020년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랑의 동기로 일하십시오!**

| 사도신경

| 찬 송 80장

| 기 도

| 성경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 23절

16.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을 갖고 감당하는 동안 봉사하는 보람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 말씀나누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동안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거나 그리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할 때 과정이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면 결과가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뤄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수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임이 자명할 때 자신 안에 움직이는 동기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사도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개의 복음이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확신 속에서 상대방을 배격하면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갈5:16)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오히려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방심한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전투적 자세로 어떤 일을 할 때, 원수가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기 쉽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싸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치는 일을 아예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전투적, 전쟁적 이미지가 기독교 신앙에는 강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이미지를 신앙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두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는, 삶이 아주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투하듯이 살기에 늘 생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전쟁이나 전투로 보기 때문에 적이나 아군이냐로 사람과 세상을 나눕니다. 내 편에 서면 동지요,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 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인데서 더 나가 “호전적”이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쟁이라 여겨지는 이 일을 하는데 미움과 분노가 쉽게 일어나고 전쟁의 대상에 대해 적개심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순간에도 자기를 못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빌2:5)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자신의 일이 절대 옳은 일이라 하여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 분노, 적개심, 증오심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군사의 개념과 우리가 치루는 전쟁의 성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무장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가슴에 품고 사랑이라는 칼로 상대방을 승복시키는 전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갈5:13)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셋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육체의 일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에 노출되면 생명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정제되지 않은 이러한 에너지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미움과 증오로 가득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세상은 이 사랑을 포위하고 얼어버리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오는 녹아버리고 그 사랑의 훈기로 세상은 변화되어 갑니다.

현대교인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진행과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진행되는 일과 이루어진 일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일이 되려면, 그 일에 헌신하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동기로 일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우리를 증오심에 몰아넣어 자기 수하로 만들려는 원수의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사랑의 군사가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말씀 나눔

1. 본문 말씀은 어떤 때에 원수가 나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 잘못된 동기가 움직이기 쉽다고 얘기합니까?
2. 이 두가지 동기에 대해 들으면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과거나 지금의 생각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3. 그 외에 이번 말씀이 주시는 은혜, 도전, 격려, 위로, 혹은 책망이 있다면 정직하게 나눠보시고,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